



Remember
In
Peace
2011.3.11

ゆこう、核を越えて、東アジアの平和へ

가자, 핵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로

**17th KOREA & JAPAN, JAPAN & KOREA
YOUTH PEACE SEMINAR**

2014.8.11-15, SENDAI

はじめに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は、2004年福岡で行われた日韓聖公会交流 20 周年記念大会の後、それまでの日韓聖公会青年交流を継続する形で、今日まで行われてきました。

今、この青年交流は、新しい時代の中で、次の10年を迎えようとしています。この間様々な青年が参加し、今、韓日の懸け橋となっておられる方が少なくありません。

ここに、今年の参加者の感想を中心とした報告書を発行させていただきます。今年は10月20日～23日に韓国・済州島で、日韓交流30周年記念大会が行われ、日本聖公会から青年が5名参加いたします。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参加者である、この青年代表は、今回のセミナーのすべての参加者の思いを胸に抱き、参加いたします。

青年自らが、次の10年を切り開き、新しい関係を作り上げてくれることと思います。ここにその思いが込められた報告書をお届けできることを感謝しつつ、これらの思いを持った青年たちがこれからどのような歩みを歩んでいくのか、見守りとお支えをお願いいたします。最後に、このセミナーの根幹である、打ち捨てられ見過ごしにされてきた人々への眼差しを、日韓青年セミナーを通して、心に刻むことが出来ますようお祈り頂けたら幸いです。

日本聖公会青年委員会 委員長 司祭 小林聡

목차

目次

1. 참가자 명단

1. 参加者一覧

2. 세미나 일정표

2. セミナー日程

3. 우리들의 기도

3. わたしたちの祈り

4. 참가자 소감

4. 参加者感想

5. 폐회 예배 설교

5. 閉会礼拝説教

第7回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2014 参加者名簿（日本側）

제7회 한일성공회 청년세미나 2014 참가자명단(일본측)

名 前	所 属
影山 敬信 Kageyama Takanobu	東北教区 동북교구
土田 悠太 Tsuchida Yuuta	東北教区 동북교구
渡部 拓 Watabe Taku	東北教区 동북교구
香山 由希 Kayama Yuuki	東京教区 동경교구
小林 美奈 Kobayashi Mina	横浜教区 요코하마 교구
松村 希 Matsumura Nozomi	中部教区 중부교구
大隅 彩恵子 Oosumi Saeko	京都教区 교토교구
久保田 愛美 Kubota Manami	京都教区 교토교구
柴田 祐雄 Shibata Yutaka	京都教区 교토교구
柳原 健之 Yanagihara Takeyuki	京都教区 교토교구
上原 成和 Uehara Seiwa	沖縄教区 오кина와교구
片岡 輝美 Kataoka Terumi	東北教区 동북교구
STAFF	
小林 聡 Kobayashi Satoshi	京都教区 교토교구
千松 清美 Senmatsu Kiyomi	大阪教区 오사카교구
丁 胤植 Jung Yoonsic	中部教区 중부교구
李 贊熙 Lee Chanhee	東北教区 동북교구
松山 健作 Matsuyama Kensaku	京都教区 교토교구
矢萩 新一 Yahagi Shinichi	京都教区 교토교구
越山 哲也 Koshiyama Tetsuya	東北教区 동북교구

제 7 회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 2014 참가자명(한국측)

第 7 回 日韓聖公會青年セミナー 2014 参加者名簿 (韓国側)

이름	소속
권석준 KWON SEOK JUN	서울 주교좌교회 ソウル・主教座教会
여정훈 YEO JUNG HOON	서울 부평교회 ソウル・富平教会
허재훈 HUR JAE HUN	서울 향동교회 ソウル・航洞教会
윤근 YOUN KEUN	대전 청주교회 テジョン・淸州教会
황윤하 HWANG YOUN HA	서울 주교좌교회 ソウル・主教座教会
김생 KIM SAENG	대전 전주교회 テジョン・全州教会
박혜미 PARK HYE MI	서울 동대문교회 ソウル・東大門教会
문지현 MOON JI HYUN	서울 도봉교회 ソウル・道峰教会
남희 NAM HEE	대전 음성교회 테ジョン・陰城教会
하지민 HA JI MIN	대전 정읍교회 테ジョン・井邑教会
김민주 KIM MIN JOO	대전 온양교회 테ジョン・溫陽教会
하수민 HA SU MIN	서울 도봉교회 테ジョン・道峰教会
STAFF	
유시경 YOO SI KYUNG	대한성공회 교무국 大韓聖公會教務局
이현동 LEE HYUN DONG	대전교구 음성교회 테ジョン・陰城教会
양승우 YANG SEUNG WOO	서울교구 교육훈련부 ソウル・教育訓練部

2014年 日韓型公会青年セミナー 日程

	8月11日(月)	8月12日(火)	8月13日(水)	8月14日(木)	8月15日(金)
07:00~07:30		朝の祈り	朝の祈り	朝の祈り	荷物整理
07:30~08:00		朝食	朝食	朝食	朝食
09:00~10:00		講演：片岡真美さん (会津放射能情報センター代表) & シェアリング	被災地巡礼(新地町) →大型バス1台 ・セク新地でお話聞く (松本さん、三宅さん)	フリータイム	閉会礼拝(聖餐式) (司式：千松清美司祭、 越山哲也司祭、説教：加藤博道東北教区主教)
10:00~11:00		昼食(エスポール宮城)	昼食(弁当)	昼食(各自由)	解散
11:00~12:00		被災地巡礼 →大型バス1台 (関上、荒浜)	・新地町巡礼 ・仮設訪問 (がんご屋)	フリータイム	
13:00~14:00				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 (60分)	
14:00~15:00				全体の分かち合い (お祈り、感想など)	
15:00~16:00					
16:00~17:00	受付：エバールみやぎ 閉会礼拝(司式：千松清美司祭、説教：ユ・シギョン司祭)・オリエンテーション・7休プレキング				
17:00~18:00					
18:00~19:00	夕食	夕食	夕食	夕食	夕食
19:00~19:30	・いっしょに歩こう！ パート2	フリータイム(30分)	フリータイム(30分)	フリータイム(30分)	フェアウエルパーティー (司会：久保田愛美、ムン・ジヒョン)
19:30~21:00	だいに・東北～報告 (影山敬信) ・脱被爆報告(ヨ・ジョンファン)	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 (90分)	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 (90分)	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 (90分)	
21:00	夜の祈り	夜の祈り	夜の祈り	夜の祈り	

2014년 한일성공회 청년세미나 일정

	6월11일 (月)	6월12일 (火)	6월13일 (水)	6월14일 (木)	6월16일 (金)
07:00 ~ 07:30		아침기도	아침기도	아침기도	침성리
07:30 ~ 08:00		초식	초식	초식	초식
08:00 ~ 10:00		강연: 카타오카 테루미 (아이즈방사능정보센터대표) 순나눔	파헤자순례 (신치마찌) →대형버스1대 · 신치센터에서 이야기듣기 (마쯔모토, 미야찌 씨등)	자유시간	폐회예배 (성찬식)) 침찬:샘마쯔 기요미 신부, 코시야마 테쯔야 신부 천교카토 히로미치 홍복교구주교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중식 (에스포트 미야기)	중식 (도시락)	중식 (과자자유)	
13:00 ~ 14:00		파헤지 순례(필드) →대형버스1대 (유리아찌, 아타하마)	· 신치마찌 순례 · 가실주역방문 (장고야)	자유시간	
14:00 ~ 16:00				그룹나눔 (80분)	
15:00 ~ 16:00				친채 나눔 (세미나주제, 감상 등)	
16:00 ~ 17:00	참수: 에스포트 미야기 개회예배(인도:샘마쯔 기요미 신부, 천교유시경 신부) ·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석식	석식		
17:00 ~ 18:00		자유시간 (80분)	자유시간 (80분)	폐어벨라더 (사회:윤지현, 쿠보타 마나미)	
18:00 ~ 19:00		그룹 나눔 (80분)	그룹 나눔 (80분)		
19:00 ~ 19:30	· 잇소나아루꼬! 파트2 소중하게 · 토호구 · 보고(카게야마 타카노부) · 발핵운동보고 (역정훈)	참기도	참기도		
21:00		참기도	참기도		

わたしたちの祈り

この祈禱文は、2014年8月11日から15日、日本の仙台、新地を会場に行われた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の最終日に行った閉会聖餐式の中で祈られたものである。

この祈禱文は、「ゆこう、核を越え、東アジアの平和へ」と題した全体のプログラムを通して、2011年3月11日に起こった東日本大震災と、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事故により被害を受けた方々に出会い、場所を訪れる中で、日韓の青年たちが紡いだ祈りである。

今年、日韓聖公会交流30周年を迎えるが、青年たちが生きて来た歩みや出会い、これからへの思いを、祈りとして神様に献げたい。

<Aグループ>

共に歩んで下さる愛の神様、あなたは打ちひしがれた人、飢えている人、こころ傷ついた人をなぐさめ、寄留者に安心できる場所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東日本大震災が起きてから3年以上の月日が経っています。今もなお、苦しみ・悲しみの中にある方、希望を見失っておられる方々がおられます。どうかその方々にあなたのお恵みがあり、一歩ずつ歩む力をお与えください。また、さまざまな決断の中で互いの思いや痛みが大切にされ、分裂ではなく、ともに平和と命への道を歩むことが出来ますように。

日本・韓国政府・電力会社は、私たちに必要な情報を隠し、そのことによって多くの人々が傷つき、争う結果となっています。どうか彼らがそのことに気づき、平和な国へと進ませ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また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事故の責任者である、日本政府と東電の経営陣に正義の心を与え、利益をむさぼる対応ではなく安全安心のための解決策を用意させてください。

これからを生きる私達青年には、未来を創っていく・担っていく責任があります。私たちは弱い存在であります、主が共にいてくださり、私たちに動く力・考える力を与え、この世界を正しい

우리들의 기도

이 기도문은, 2014년 8월 11일부터 15일, 일본 센다이와 신치에서 거행된 한일 성공회 청년세미나 마지막 날 폐회 성찬식 때 드린 기도이다.

이 기도문은, [가자 핵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로]라는 주제의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재해와, 동경전력 제1원전 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만나고, 현지를 방문하면서, 한일 청년들이 뜻을 모아낸 기도이다.

올해는 한일 성공회 교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청년들이 살아온 길과 만남, 그리고 앞으로의 생각을, 기도로써 하느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A 그룹>

우리과 함께 걸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당신은 지쳐 쓰러진 사람들, 배고픈 이들,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시고, 기류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동일본 대재해가 일어난지 3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희망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비오니,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걸음씩 일어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결단 가운데, 서로의 생각이나 아픔을 소중히 여겨, 분열이 아니라, 함께 평화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일본과 한국의 정부와 전력 회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감추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분쟁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오니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평화로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책임자인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의 경영진에게 정의의 마음을 주셔서, 사리사익을 취하지 말고 안심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구하게 하소서

方向へと動か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お導きください。

この祈りを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名を通して、み前にお捧げ致します。

<Bグループ>

神様のみ摂理のもとで、私たちがこのように交わ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下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お互いに違いますが、イエス・キリストのみ心で一つとなって、喜びと悲しみ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下さいました。このことを忘れなく、愛する人々に伝え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して下さい。

また、神様がつくられた命の尊さを気づかせて下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思わぬ災害によって命を失った大勢の方々の魂が神様のみ翼のもとで安らかに憩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災害によって生きるヴィジョンを失った方々の家庭を祝福して平和をもたらして下さい。特に、仮説住宅での生活を強いられている全ての方々が逆境をのりこ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下さい。そして、主がこの世をつくられて「良かった」と、おっしゃったみ言葉のように、壊れた創造世界が回復されますように。私たちが一緒に分かち合った悲しみが喜びと希望として変わりますように。

それぞれの生きる現場で、お互いを覚える祈りの情熱がさめない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御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

<Cグループ>

苦難のなかにいる人と共におられ、その人たちを救ってくださる神さま。わたしたちをこの場に集めて下さっ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たしたちに、この真実を知らせて下さっ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そして、わたしたちが、実際に起こってきた出来事に対し、分かっていたにも関わらず、積極的に向き合わず、無関心だったことをどうぞお許しください。

앞날을 살아갈 우리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짊어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들이 행동할 힘, 생각하는 힘을 주시고, 이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B 그룹>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되어,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지으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 생명을 잃은 수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어지게 하시고,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특별히 가설주택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어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대로, 훼손된 창조세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슬픔이 기쁨과 희망이 되게 하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모든 세대에 함께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 그룹>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러한 시기에 양국의 청년이 모여 어려운 현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긴 것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이들의 그

そして、どうか、わたしたちが見て、聞いて、感じたことを忘れないように支えて下さい。そして、わたしたちが、それらのことを伝えられる、勇気と力をお与えください。また、わたしたちが隣人の経験した傷を、傷を負った人と共にそれらのすべてを負う勇気と力をまたお与えください。

そして、わたしたちがその勇気を見た時に、どうか約束の虹を思い起こ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主の御名によって。アーメン。

<Dグループ>

苦しみのなかでも新しく創造し働かれる神よ、わたしたちは心から寄り添い知ろうとしなかったことを懺悔します。東日本大震災と津波で被害を受けたすべての人々を思い出し、主の温かい御手のなかで彼らをお守りください。また彼らと痛みを共にできなかったことを懺悔して、彼らのことを忘れず、覚えながら主と共に働く者としてください。アーメン。

상처들을, 널리 전하여, 상처 입은 이들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잃을 때마다 약속의 무지개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D 그룹>

고통 속에서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또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그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2014年8月15日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参加者一同

2014년 8월 15일
한일성공회 청년세미나 참가자 일동

<青年・청년>

上原 成和	大隈彩恵子	權 錫俊	김민우
影山 敬信	香山 由希	가성	양희
久保田 愛美	小林 美奈	문시연	박혜미
柴田 祐信	工田 悠太	呂政勲	윤
松村 希	松山 健作	하수민	라지연
柳原 健之	渡部 拓	허재환	홍하영

<聖職者・성직자>

越山 哲世	小林 聡	양승우	유시경
千松 清美	丁胤植	李贊熙	이현우 十加藤 博道

참가자 소감/세미나感想

(名簿順です/명단순입니다)

影山敬信/카게야마 타카노부

私が今回のセミナーに参加したのは正直自分の意思ではなく、周囲からの勧めにいわば負けた形での参加でした。しかし、そのような消極的な思いは初日できれいに消えました。日本人はもちろんのこと、韓国人にも今日本が抱えている震災や原発・放射能などのさまざまな問題に関心をもって、仙台に集まってきてくれたことに感動しました。

初日の夕食後に私は自身の震災体験をみなさんの前で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3年半が経ち、明確な記録を取ってなく、数枚の写真と頭の中だけでしか記憶していないこの自身の体験について語ることは、自分の中でも風化してしまいそうなものを再び掘り起こす、とても貴重な時間と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場を設け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しています。

また、2日目の片岡さんのお話では、メディアでは報道されない生の福島の声を聴くことができました。私は福島県出身であり、祖母は今も福島県に住んでいます。福島の問題は福島県人として大変心を痛めています。そしてこの問題は日本全国、そして世界全国どこでも起こりうる問題であるということに再認識しました。これは天災ではなく人災です。命を顧みず経済ばかりを追ってしまった結果です。改めて政府には原発の在り方を考えてほしいと思います。

今回のセミナーでは普段の生活ではなかなかできない経験と、参加しなければもしかして一生会え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仲間と出会う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お互いの国の良いところだけではなく、それぞれ抱える様々な問題も理解し合うことが大事だと気付きました。世界平和の第一歩はまず隣国を愛することから始まると思います。このセミナーを通して日本と韓国の心の距離が近づくことができました。参加して本当に良かったです。

제가 이번의 세미나에 참가한 것은 솔직히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주위에서의 권유에 이른바 겨서 가는구나의 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극적인 생각은 첫날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일본인은 물론, 한국인에게도 지금 일본이 안고 있는 지진 재해나 원전·방사능 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센다이에 모이게 해준 것에 감동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후에 저는 자신의 지진 재해 체험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3년반이 지나고, 명확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몇장의 사진과 머리속 기억만으로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 안에서조차 풍화해버릴 것 같은 것을 다시 꺼내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2일째의 가타오카씨의 이야기에서는, 미디어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살아있는 후쿠시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쿠시마현 출신이며, 할머니는 지금도 후쿠시마현에 살고 계십니다. 후쿠시마의 문제는 후쿠시마현 사람으로서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 전국, 그리고 세계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재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목숨을 뒤돌아 보지 않고 경제만을 쫓은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원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평소 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과, 참가하지 않으면 혹시나 평생 만날 수 없었을 지도 모르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나라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각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세계평화의 첫걸음은 먼저 이웃나라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마음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참가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に参加してまず初めに思ったことは、マスコミを通して見ていた韓国人と違うということです。今だから明かすことができますが、私はそれまで韓国人に良い印象を全くもっていませんでした。テレビで見る韓国人は常に日本を貶め、常に日本の悪口を言い、少しでも隙があれば日本人を悪者に仕立て上げようとしていましたから。

だからこそ、ご縁があって司祭様より今回のセミナーのご案内をいただいたときに、これはとんでもない恵みであり、またとないチャンスだと思いました。直接会って本当にそのような人達なのか、自分の目で確認をしたい。誤解があれば解きたい。できることならば心からの友好関係を築きたい。しかし、もしかしたら韓国の方々には拒絶をされるかもしれない。いや、きっと拒絶されるだろう。韓国政府の姿勢がその証拠ではないか。そのような複雑な心境で当日を迎え、私は半ば恐々としながら会場に向かいました。

しかし会って話をし、共に食事をし、共に酒を飲み、共に寝て、数日間を過ごすうちに次第に私の考えは変わってゆきました。実際に会ってみると日本人も韓国人も変わりませんでした。話す内容もお互いの話、家族の話、将来の話や恋の話など考えていることはほとんど一緒。ときには両国のことなど真剣に話し合うこともありました。育ってきた文化や価値観が違いますからもちろん全てが一緒とはゆきませんが、そこはこれから理解し合えば良いと思いましたし、どうしても合わない部分は個性として、またお国柄として尊重し合えば良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今回は被災地の巡礼ということで、韓国の方々には海を越えて日本を訪問してくれました。本当に有り難い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慣れない日本での生活に、苦勞されたことも多かっ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また、日本中の各教区からも沢山の方が被災地を訪れてくれました。神様のお導きに只々感謝を申し上げるばかりです。

最後になりますが、今回のセミナーでは様々と貴重な経験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様々と勉強になることもありました。私は今回感じたことを他の方々に伝えてゆ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また、それが今回神様のお導きで集められた私たちの務めであるとも思います。両国の間には困難な課題が山積していますが、私は私達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両国ならきっと乗り越えられると信じて疑いません。私達ならきっとできます。その日まで絶えず祈りつつ、歩んでゆ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에 참가해서 제일 처음에 생각한 것은, 마스크를 통해서 봤던 한국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좋은 인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는 한국인은 항상 일본을 깎아 내리고, 일본을 욕하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일본인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신부님에게 이번 세미나 안내를 받았을 때, 이것은 뜻하지 않는 은혜이며,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인가,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음속으로부터 우호관계를 쌓고 싶다. 그러나, 어찌면 한국의 여러분에게 거절을 당할지도 모른다. 아니, 반드시 거절 당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자세가 그 증거가 아닐까? 그러한 복잡한 심경으로 당일을 맞이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자고, 몇일간을 보내는 동안에 점차 제 생각이 변해 갔습니다. 막상 만나 보니 일본인도 한국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는 내용도 서로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 장래의 이야기나 연애의 이야기 등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같은. 때로는 양국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자라온 문화나 가치관이 달라서 물론 모두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이제부터 서로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성으로서, 또 나라의 특색으로서 존중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은 피해지역의 순례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여러분은 바다를 건너 일본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일본중의 각 교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피해지역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의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세미나에서 다양함과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낌점을 다른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것이 이번 하느님의 지도에서 모아진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사이에는 곤란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양국이라면 꼭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들이라면 꼭 할 수 있습니다. 그 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걸어 가고 싶습니다.

香山由希/카야마 유키

8月11日~15日、私は仙台で多くの思い出を作りました。わずか5日間の交流でしたが、時間を忘れて飲み明かし、あっという間に友人となりました。私は、彼らと被災地を訪れ、意見を交わした時間を非常に有意義に過ごすことが出来たと思っています。同時に、私は2011年からの自分を振り返り、被災した人々への思いを失っていた自分に気づき、今までの震災への向き合い方を反省すると共に、新たな思いを心に刻みました。

私は今回、初めて東北を訪問しました。放射線度が高い地域ということで、内心不安な部分がありましたが、放射線を肌で感じるわけもなく、震災の跡が見えない仙台駅周辺の町並みに安心していました。しかし、バスで1時間も走ると、辺り一面を荒野が覆い、へし折れたガードレール、ちぎれたビルの土台、などほとんど復興していない閑上、荒浜地区を目にしました。言葉にならないほどショックでした。

震災が起きた2011年は、私の大学生活の始まりの年でもあります。ニュースで連日報道される原発、津波の被害、被災者の生活状況にショックを受ける一方で、半ば非現実的な出来事として受け止めている自分もいました。気づくと震災から1年、友人との会話の中で「震災」「東北」が出てくることはなくなりました。東日本大震災は「3.11」として過去のものとなり、私の頭の中にもほとんど隅の方に申し訳程度に残っているだけでした。

今回の被災地巡りの中で、津波で流された方々の話、友人を震災で失った方の話、今現在も仮設で暮らしている方の話を現場で聞き、3.11は決して過去の話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思い出すことが出来ました。今も苦しんでいる人がいる。ここで多くの命が失われた。これらのことを“忘れず”、多くの人に“伝えていく”、そして3.11以外にも日本中、世界中で苦しんでいる多くの人々に心で“寄り添い”、“祈り”続けていこうと思います。

8월 11일~15일, 저는 센다이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5일간의 교류였습니다만, 시간을 잊고 밤새도록 마시고, 순식간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피해지역을 방문하고, 의견을 주고 받은 시간을 대단히 보람있게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2011년부터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피해 당한 사람들의 생각을 잃고 있던 자신을 알아차리고, 지금까지의 지진 재해를 마주 향하는 것을 반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각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는 이번, 처음으로 동북지방을 방문했습니다. 방사선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심 불안한 부분이 있었지만, 방사선을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지진 재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센다이역 주변의 거리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로 1시간씩 달리면, 피해지역은 황야로 덮고 있었고, 휘어져있는 가드레일, 조각조각 찢긴 빌딩 토대 등 대부분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유리아게, 아라하마 지구를 보았습니다. 말이 안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진 재해가 일어난 2011년은, 저의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뉴스로 연일 보도되는 원전, 해일의 피해, 피해자의 생활 상황에 쇼크를 받았지만, 그러나 거의 비현실적인 사건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도 있었습니다. 알아차리고 나서 지진 재해로부터 1년, 친구와의 이야기에서 「지진 재해」, 「동북」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3.11」이라는 과거의 것이 되었고, 제 머리 구석에 변명 정도 남아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의 피해지역 순례에서, 해일에 쓸려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친구를 지진 재해로 잃은 사람의 이야기, 지금 현재도 가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3.11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서

많은 목숨을 잃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3.11 이외에도 일본 가운데, 온 세계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도”를 계속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小林美奈/코바야시 미나

私は今回、初めて日韓青年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たが、そう感じないほど新しい友と仲良くなれて、まるで一つの家族のように皆で過ごした5日間は、神様の愛に溢れ、本当に幸せでした。1995年から始まったこのセミナーが、今まで大切に受け継がれてきているからこそ、今年も日本と韓国の青年が良い交流ができたことを強く感じ、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

今回のセミナーでたくさんの経験をさせていただき、色々なことを感じましたが、私の中で特に思い出に残っているのは、被災地を巡礼した日の夜の祈りで「聖歌 323 番」を歌った時のことです。この聖歌は、“この世はみな神の世界で、岩や木々、空や海など、すべての自然が、神様のみわざをほめたたえ、語りつげる”と歌われていますが、被災地巡礼を終えて自然災害の恐ろしさを覚えた後に歌ったことで、いつも以上に心に沁み、考えさせられ、胸が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多くの命を奪い、これからの自国に多くの問題を残した地震や津波を、私たち人間はとて憎く思ってしまうのですが、自然は、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下さった素晴らしい賜物でもあることを決して忘れては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このことを大切に心に留めて生活していきたいです。

また、被災地巡礼を終えて、ひとりひとりの思いをディスカッションで共有したこと、特に韓国の友の意見や思いを聞いたことは、普段ではできない貴重な体験でした。それらの思いを一つにして、最後に自分達で考えたお祈りを神様に捧げたことも初めての体験で、未来を担う青年として自覚と責任を改めて感じたのと同時に、日本と韓国が離れていても、神様を通してこれからも強く繋がっていることに感動しました。

5日間すべてが楽しいのではなく、被災された方々に寄り添うことや原発問題などについて考えることはやはり難しく、悩むこともありました。友と一緒に考えたことで、いつも強くいれました。今回の素晴らしい出逢いをずっと大切に、またこのセミナーに参加でき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일 청년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새로운 친구와 사이 좋게 지냈고, 마치 하나의 가족인듯한 모두와 보낸 5일간은, 하느님의 사랑에 넘치며,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세미나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야말로, 올해도 한국과 일본의 청년이 좋은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강하게 느꼈고, 감사의 기분을 한가득 받았습니다.

이번의 세미나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만, 제 안에 특별히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피해지역을 순례한 날의 밤기도에서 「성가 323 번」을 불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성가는, “이 세상은 모든 신의 세계에서, 바위나 나무들, 하늘과 바다, 모든 자연이, 하느님만이 행위를 칭찬하시고, 이야기 해 나갑니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피해지역순례를 마치고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기억한 후에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평소이상으로 마음에 스며들고, 생각하게 되고, 가슴에 한가득이었습니다. 많은 목숨을 빼앗기고, 앞으로의 자국에 많은 문제를 남긴 지진이나 해일을, 우리들 인간은 정말 미워하고 있지만, 자연은,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기도 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서 생활해 가고 싶습니다.

또, 피해지역순례를 마치고,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을 토론에서 공유한 것, 특히 한국의 친구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들었던 것이나, 평소에는 가능하지 않은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것들의 생각을 하나로 해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생각한 기도를 하느님에게 바친 것도 처음있는 체험으로,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으로서 자각과 책임을 다시 느낌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떨어져 있어도, 하느님을 통해서 이제부터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5일간 모든 것이 즐겁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함께 있는 것이나 원전 문제 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역시 어렵고, 고민할 것도 있었습니다만, 친구들과 같이 생각한 것으로, 언제나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훌륭한 만남을 소중히 해서, 또 이 세미나에 참가 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松村希 (ルシア) /마쯔무라 노조미(루시아)

いま私たちが生きる世界が抱える様々な問題に、またそこにある痛み に、一人ひとりが主体的に向き合う必要性を強く強く感じました。人任せ、人のせいにしてはられない。片岡輝美さんの講演から、また、韓国の青年による脱核運動の報告から、柳先生が紹介された北朝鮮の支援活動から、そして、新地町で出会った方の声から感じたこの思いを、これからも心に留めていたいと思います。最終日の閉会礼拝も、私にとって特別な時間になりました。「日本聖公会'95 宣教協議会共同さんげ」を捧げた時、韓国の友人たちが「主よお赦してください」と共に祈ってくれました。自分でも言葉で上手く説明できない感覚でしたが、それを聞いて私は思わず泣いてしまいました。

5日間、私たちは何度も違いを感じ、それを認め、痛みや畏れを分かち合い、そして、大きな希望の印として2つの虹を共に見ました。言葉や文化など一人ひとり異なる背景を持った私たちが「共感」できたこの体験は、韓国と日本の、ひいてはアジアの平和への一歩になるという確信を、私は得ました。それは小さな小さな一歩かもしれませんが、ここに集った仲間たちと一緒に、確実に始められる歩みのスタートです。

私たちの連帯が、平和の器として神さまに豊かに用いられますように！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픔에, 한사람 한사람이 주체적으로 마주 향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남에게 맡기거나,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가타오카 테루미씨의 강연에서, 한국의 청년에 의한 탈핵운동의 보고에서, 유신부님이 소개한 북한의 지원 활동에서, 그리고, 신치마을에서 만난 분의 목소리로부터 느낀 이 생각을, 앞으로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의 폐회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성공회 ”95 선교 협의회공동 참회」를 바쳤을 때, 한국의 친구들이 「주여 용서해주세요」와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스스로도 말로 능숙하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듣고 나는 생각지도 않게 울어버렸습니다.

5일간, 우리들은 몇 번이나 다름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아픔이나 두려움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큰 희망의 표시로서 2 개의 무지개를 모두 보았습니다. 말이나 문화 등 한사람 한사람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 체험은, 일본과 한국의,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평화에의 한 걸음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한 걸음일지는 모르지만, 여기로 모인 동료들과 함께라면,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연대가, 평화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에게 풍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久保田愛美 (クララ) /쿠보다 마나미(클라라)

今回のセミナーで特に心に残ったことは、被災地巡礼で訪れた関上地区と新地で見た被災地の状況と、2011年3月11日にそこで何があったのかというお話を聞いたことです。関上地区の関上中学校では、そこに通う14名の生徒が亡くなり、校舎もとても使える状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校舎の前にある慰霊碑の横に落書きされた机が置いてあり、そこには『津波を忘れても14人のことは忘れないでほしい。ずっと一緒だよ!』と書かれてありました。私はそれを見続けることも、写真を撮ることもできませんでした。中学校の周りには当時のままの家やガードレールしかなく、とてもそこに人が多く住んでいたとは想像もできない状態でした。港の近くには津波の高さを示した慰霊碑があり、その高さに驚き、また恐怖を感じました。関上地区は見渡す限り平野で、その慰霊碑よりつまり津波の高さより高い所はどこにもありませんでした。

新地では、ふじ幼稚園というところへ行きお話を聞きました。津波があった日、園児を乗せた2台のバスが幼稚園を出る前に津波に流され、先生1名、園児11名が亡くなったそうです。その日、なんとかバスの上に上がり救助を待った先生と園児たちは、寒い中意気消沈していました。しかし、そんな園児たちを見た先生はずっと歌を歌って励ましてあげていたそうです。その話を聞いたとき、将来保育士になろうと思っている私ですが、そんな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とても不安になりました。今助かった先生たちは、亡くなった子の保護者から訴えられ裁判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当日どんなに頑張っても失われた命、それをわかっていながらも訴えなければいけない保護者の心境、それらは3年経った今でも変わらず続いているのだと知ったとき、もっと寄り添う心を忘れてはいけないのだと深く反省しました。

帰ってきてからのグループシェアリングでも、忘れ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した。メンバーの一人が、その日私たちが新地のあらゆるところを訪れる為に歩いた道、バスが走ってきた道には遺体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自分はどこに立っているのか、どこに向かっているのか。亡くなった人たち、生きている人たちの声を本当に私たちは聞いているのか、いや聞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発言しました。まさにその通りだと思いました。たとえ私たちの周りの人々が被災地のことを忘れても、私たちセミナー参加者は決して忘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心に誓いました。

이번 세미나에서 특히 기억에 남은 것은, 피해지역순례에서 방문한 유리아게지구와 신치에서 본 피해지역의 상황과, 2011년 3월 11일에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유리아게지구의 유리아게 중학교에서는, 그곳에 다니는 14명의 학생이 죽었고, 학교건물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학교건물 앞에 있는 위령비석의 옆에 낙서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해일은 잊어도 14명의 것은 잊지 않길 원한다. 계속 함께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도,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학교의 주변에는 당시 그대로의 집들과 가드레일밖에 없었고, 정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항구 근처에는 해일의 높이를 나타내는 위령비석이 있었고, 그 높이에 놀라고, 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유리아게지구의 보이는 것은 온통 평야였고, 그 위령비석보다 즉 해일의 높이보다 높은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치에서는, 후지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일이 있었던 날, 원아를 태운 2대의 버스가 유치원을 출발하기 전에 해일에 떠내려가고, 선생님 1명, 원아 11명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 어떻게든 버스 위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린 선생님과 원아들은, 추운 가운데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아들을 본 선생님은 힘껏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래 보육사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던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까라고 매우 불안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선생님들은, 돌아가신 아이의 보호자에게서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일 정말 열심히 해도 잃어버린 목숨, 그것을 알고 있지만 소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호자의 심경, 그것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함께 있어주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돌아오고나서 그룹 웨어링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멤버중 한 사람이, 그 날 우리들이 신치의 모든 곳을 방문하기 위해 걸었던 길, 버스가 달려 왔던 길에는 사체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자신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인가? 돌아가신분들,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우리들은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 듣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주위 사람들이 피해지역을 잊어도, 우리 세미나 참가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맹세했습니다.

柳原 健之/야나기하라 타케유키

今回初めて日韓青年交流セミナー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多くの気づきと学び、出会いがありました。特に今回仙台で開催と言うことで、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を初めて訪れ、見て回れたことは私にとってとても意義深いものとなりました。

震災発生から3年以上の月日が過ぎ、テレビなどでは被災地の様子などを伝えなくなったと感じます。また、他の情報媒体でも報道は少なくなっ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そのような時期に、実際に津波被害に遭った現場へ行くこと、体験した人々から話を聞くこと、それらを通して今の被災地の姿を改めて見てみると、やはりまだまだ回復には時間がかかると思い知らされました。特に今もお津波による被害で苦しんでおられる方、原発事故によって故郷へ帰りたくても帰れなく、仮設住宅に住んでおられる人々に会うと、現在進行形での問題であることがひしひしと伝わってきました。

また、今回片岡輝美さんの講演にて、放射能の影響、原子力発電の危うさについて、語っておられるのを聞くと、私達がそのようなものに頼り、また、地域の人々に危険を押し付けながら暮らしていたのだと考えさせられました。

また、韓国でも同じように地域の人々に負担が押し付けられ、傷つき、分かれ争っている事情を聞くとこの構造は世界においても同じであり、全世界的に人々が考えていかねばならない問題なのだなと感じました。ただ、今回このような問題を日韓の青年たちで分かち合い、交流の時を持てたのは私にとってとても良い刺激となりました。自国の人だけでは思いつかない考えや、思い、それらに触れることによって物事を考える幅が広がったように思います。

まだまだ被災地の復興には時間がかかり、全国には原発があります。これらの問題を忘れることなく、私達青年にある責任を覚えながら、何をしていけるのか、何をすべきか考え、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에 처음으로 한일 청년교류 세미나에 참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센다이에서 개최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을 처음으로 방문, 둘러보았던 것은 나에 있어서 매우 뜻 깊었습니다.

지진 재해 발생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고, 텔레비전 등에서는 피해지역의 모습들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정보매체에서도 보도는 적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시기에, 실제로 해일 피해를 받은 현장에 가는 것,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피해지역 모습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역시 아직 회복에는 시간이 꽤나 걸린다고 절감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역시 해일에 의한 피해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 원전사고에 인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고, 가설 주택에 살고 계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재 진행형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또, 이번 가타오카 테루미씨의 강연에서, 방사능의 영향, 원자력발전의 위험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에 의지하고, 또, 지역의 사람들에게 위험을 떠맡기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똑같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떠맡기면서, 상처받고, 나눠 싸우고 있는 사정을 들으면서 이 구조는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고,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문제를 한일 청년들로 서로 나누어 가지고, 교류할 때가졌던 것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자국의 사람만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생각이나, 기분, 그것들을 부딪치면서 사물을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피해지역의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전국에는 원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잊어 버리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책임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기도해 나가고 싶습니다.

上原成和/우에하라 세이와

去年に引き続き2回目のセミナー参加でした。始めて訪れた仙台という地で、去年であった仲間たちとそして今年出会った新しい仲間たちと共に4泊5日のかなり充実した日程を無事終えることが出来ました。支えってくださった全ての人たちに感謝します。

震災後の仙台の地をこの目で見て、出会った多くの人たちの話を聴いて、色んなものに触れながら、

自分が今まで真剣に「彼らの声」を聴こうとしなかったことを反省しました。

誰かの死の犠牲を見過ごすような自分を変えたい、そしてそのようなことを強いる世界を私たちが共に変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した。共に行きましょう。私たちはそのために呼ばれたキリストの体です。忘れないこと、覚え続けること、伝えていくことの大切さを学び合った私たちは今や「自分一人がやっても」や「誰かが代わりにやってくれる」といった言葉は出ないはずで。これからは私たちの番なのです。私は青年セミナーの未来と可能性はまさにここにあると信じます。

最後に、私はセミナー報告書をまとめながらこの感想文を書いているのですが、皆さんの感想文を読みながら今年も本当に最高のメンバーと最高の時間を過ごすことが出来たと思いつきながら、一人でニヤニヤしています。そんなことをしているうちに時間だけが過ぎてしまって、結局「これ大丈夫なの？」ってな感じの報告書になってしまったことをこの場を借りて謝りたいと思います。本当にすみませんでした。でも、それ以上に報告書作成に協力してくれた皆さん、セミナーをいろんな形で助けてくださった皆さん、お祈りしてくださり、支援してくださった方々、そして全て最初から今まで、そしてこれからも共にいてくださる神様に大大感謝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会いましょう。色んなことを分かち合いましょう。たくさん遊びましょう。そしてこれからも共にいきましょう！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세미나 참가였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센다이(仙台)라는 땅에서, 작년에도 만난 친구들과 그리고 올해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4박5일의 너무나 알찬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해후의 센다이의 땅을 제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것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진지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의 희생을 간과해 왔던 자신을 바꾸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강요하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바꾸어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불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잊지 않는 것,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전하는 것에 중요함을 배운 우리는 이제는 ‘나 혼자만 해봤자’ 라든가 ‘누군가가 나 대신 해준다’ 라든가 하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저는 청년 세미나의 미래와 가능성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미나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의 글을 읽으면서 올해도 최고의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고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다시 생각하면서 혼자 싱글싱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웃고 있는 동안에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것 괜찮은가?’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보고서가 되어버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보고서 작성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 세미나를 여러 부분에서 도와주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만납시다. 여러 가지 서로 나눕시다. 많이 눕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갑시다!

권석준(이사야) /クオン・ソクジュン (イザヤ)

지난 8월 11일부터 15일 까지 4박5일간 “가자 핵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로” 라는 주제로 일본 센다이 지역에서 개최된 한일 청년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환대해 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의 아픔과 후쿠시마 원전 문제, 그리고 한국은 밀양의 송전탑,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함께 공유함으로 한일 양국 간의 사회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쓰나미의 아픔이 지나간 그 자리를 함께 방문하고 기도함으로서 많은 분들이 겪었을 크나큰 아픔

을 바라보며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일본의 슬픔만은 아닙니다. 한국도 함께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할 슬픔이고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있거나 서로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민, 사랑, 공동체로 하나 되어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앞으로 난제들을 극복해나갈 한일 양국의 청년들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 난제들만이 아닌 우정과 행복 또한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잇쇼니 아루코”

去る8月11日から15日まで4泊5日間「ゆこう、核を越えて、東アジアの平和へ」という 주제로日本、仙台地域で開催された日韓青年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た。

短い期間でしたが多くの方々が歓待してくださり、一生忘れることのできない多くの思い出を胸に抱くこととなりました。

去る東日本大地震の痛みと福島原子力発電所問題、そして韓国ではミリヤンの送電塔、セウォル号事件の痛みを共に共有することで日韓両国間の社会の痛みを分かち合う時間となりました。

津波の痛みが過ぎ去ったその場を共に訪問し祈ることで多くの方々が体験したこの上なく大きい痛みを見つめ、とても悲しくなりました。

しかし、この悲しみは日本だけの悲しみではありません。韓国も共に、私たちが共に痛まなければならぬ悲しみであり、共に力を合わせて克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確信しました。

私たちは互いに遠く離れていたり、互いに関係ない存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距離と言語と文化を跳び越えるキリスト中で憐れみ、愛、共同体で一つとなり、一つのパンを分け合い、一つの体を成し遂げる肢体なのです。

今後難題を克服していく日韓両国の青年たちの歩みを期待します。そして私たちはこれからも難題だけでなく、友情と幸福もまた共に共有することでしょう。

キリストとともに、キリストの中で、聖霊によって一つとなって「いっしょに歩こう」

여정훈/ヨ・ジョンフン

먼저, 좋은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한일 양측 스태프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년 한일 청년 세미나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일본어를 못 하는 저에게 이 행사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아마 양승우 신부님께서 저를 발표자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국적을 넘어 하느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테루미 선생님의 활동 하나하나가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친교는 국가가 우리를 갈라 놓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을 통해 탈핵을 위한 양국 교회 및 시민사회의 연대가 확장되고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짧았고, 5일이라는 시간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힘이 되어 줄 친구가 바다 건너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걸겠습니다.

Ἄγιος ὁ Θεός, Ἄγιος ἰσχυρός, Ἄγιος ἀθάνατος, ἐλέησον ἡμᾶς.

先に、良いセミナーに参加する機会を与えて下さった日韓両スタッフの方々に感謝の意を伝えます。

毎年日韓青年セミナーがあるという事実は知っていましたが、日本語ができない私にとってこの行事は他人事のように感じていました。多分ヤン・スンウ司祭様が私を発表者として呼んでくださらなければ私は今回のセミナーに参加する幸運を享受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でしょう。

今回の機会を通じて私は正義のために働く人々が国籍を越えて神様の中で互いに連結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を悟りました。片岡輝美先生の活動の一つ一つが日本だけでなく韓国のためにも必ず必要なことであつたし、教会を通じて成り立つ親交は国家が私たちが分かち合うことよりもさらに強いものでした。

私はこの出会いを通じて脱核のための両国教会および市民社会の連帯が拡張され、強力になっていくことを願います。私たちの出会いはあまりにも短かつたし、5日という時間は話を十分に分かち合うには短い時間であつたかも知れません。しかし私たちはもう力になってくれる友達が海の向こう側にいるという事実を知っています。その友達に安否を伝えます。私も皆さんと共に歩きます。

Ἄγιος ὁ Θεός, Ἄγιος ἰσχυρός, Ἄγιος ἀθάνατος, ἐλέησον ἡμᾶς.

허재훈/ホ・ジェフン

안녕하세요. 한국청년대표 허재훈(바우로)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들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혼자 보면서 웃고 그랬는데... 짧았던 4박5일간의 세미나는 끝이 났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모두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처음으로 동북교구 주교님을 만난 것을 비롯하여 일본신부님들과 일본에서 시무하시는 한국신부님들, 그리고 일본 참가자들과의 좋은 만남과 행복했던 시간에 감사하며 한국에 돌아와 신학교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2007, 2013년) 2번의 참가와, 일본에서(2003, 2010, 2014년) 3번째 참가를 하였습니다. 올해가 5번째 참가였습니다. 저에게 한일청년세미나가 무엇이나고 물어보신다면? 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알아볼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장소였고 지금도 그 도전을 이어가면서 앞으로의 성공회사체를 꿈꾸는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신학생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동북대지진 이후로 작년 2013년에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고 3년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세미나였습니다. 처음으로 가보는 동북지방은 꽤나 충격적인 장소였고 참가자들과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며 또한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없었던 경험이 얻었으며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외국어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3월 11일의 아픈 과거를 잊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 있었지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우리들은 세미나가 있고나서부터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기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느님이 계시고 한국과 일본에서 성공회를 믿는 청년들입니다. 성공회 틀 안에서 우리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만 우리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고싶고 사랑합니다.^^

こんにちは。韓国青年代表ホ・ジェフン(パウロ)です。みんな、元気ですか?^^

韓国に帰ってきて、私たちが撮った写真を共有して、一人で見て笑っていたんですけど...短かった4泊5日間のセミナーは終わりましたが私たちの胸の中には今でも忘れないで引き続き考えること?みんな記憶していますか?

初めて東北教区主教様に会ったのを始め、日本の司祭様方と日本で働かれる韓国の司祭様方、そして日本の参加者たちとの良い出会いと幸せだった時間に感謝して韓国に帰ってきて神学校生活に適應をしながら過ごしています。

セミナーには韓国で(2007, 2013年) 2回、日本で(2003, 2010, 2014年) 3回参加しました。今年が5回目の参加でした。私に日韓青年セミナーが何かと尋ねてみるなら? 自分自身の未来を夢見て調べてみるように道を開いてくれた場所であり、今でもその挑戦を続けて今後聖公会司祭を夢見る大韓聖公会釜山(부산) 教区神学生です。

今年は特に2011年3月11日福島で起きた東北大地震以後で、昨年2013年に韓国慶州で開催されて3年ぶ

りに日本で開かれるセミナーでした。初めて行ってみる東北地方はかなり衝撃的な場所であり参加者たちと多くの考えを交わすことができたし、また、参加者の話を聞いて私にはなかった経験を得たし、そして私が使う外国語の中で話すことの出来る日本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出来てあまりにもうれしかったです。

3月11日の痛い過去を忘れるにはあまりにも大きい試練がありましたが、初めに私が話した私たちはセミナーがあってから忘れないで引き続き考えることをお互いがお互いに約束をしました。

韓国では目から遠ざかれば心も遠ざかるということわざがあります。ですが私たちは神様がおられて韓国と日本で聖公会を信じる青年たちです。聖公会の枠組みの中で私たちは目には見えないけれど繋がっています。このように韓国と日本は近くて遠い国ですけど私たちが今後の未来を変えていったら良いと思います。今回のセミナーで習ったことを通じて皆さんとまた会うことを祈って助けが必要ならば積極的に助けます。

皆さんに会いたいです。愛しています。^^

윤근/ユン・グン

이번 한일 교류 평화 세미나는 나에게 있어 커다란 기대감은 없었다. 오히려 세미나가 끝난 후에 있을 여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해외여행을 안 한지도 몇 년이 지났기에, 나에게 있어 세미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잠시 들르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일까, 세미나는 나에게 있어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평소 수없이 접했던 재난 뉴스들이 현실로 다가왔고, 이러한 일들이 결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으며, 이러한 일들을 잊고 지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기억하자’란 말이 내 마음 속 깊숙이 각인되었고, ‘너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란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다.

돈만을 벌기 위해 취업을 준비했던 내 자신이 한심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해야만 하는 일’은 언젠가, 돈을 벌면, 여유가 있으면 하게 될 그런 일이었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란 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에 큰 욕심은 없지만, 그와 동시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지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리고 몇몇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 속에서 커져만 갔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 안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언젠가 나에게 올 계기만을 기대하고 살았던 나였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계기는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을 배웠으며, 계기는 내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변하려고 한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모르고 불안하지만, 나는 변할 것이고 이번엔 변화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今回の日韓交流平和セミナーは自分にとって大きな期待感はなかった。むしろセミナーが終わった後にある旅行に焦点が合わされていた。海外旅行をしないで何年かが過ぎていたので、自分にとってセミナーは旅行の前にしばらく立ち寄る「場所」に過ぎなかった。

期待がなかったためであろうか、セミナーは自分自身に大きな変化を与えた。普段数えきれない程接した災難のニュースが現実近づいたし、このような事が決して遠い所で起きることではなかったことに気づき、このような事を忘れて過ごしていた自身を反省することになった。「記憶しよう」という言葉が自分の心の奥深くへと刻まれ、「君も何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が頭の中を支配した。

お金だけを儲けるために就職を準備していた自分自身が情けなかったし、自分が「したいこと」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に対する苦悩に陥ることになった。自分にと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いつか、お金を儲ければ、余裕があればすることになるそんなことだった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いうのは今で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悟った。お金に大きな欲心はないが、それと同時にお金がなければ何も出来ないということも分かるが、お金がなくても出来て私がやりがいを感じる事ができること、そして堂々とした仕事をしたいという考えが自分の心の中で大きくなっていった。そして何かが自分の中で変わり始めた。

今までいつか自分に来るチャンスだけを期待して生きてきた自分だったが、今回のセミナーを通じてチャンスは自分が自ら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習ったし、チャンスは自分が作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ことを知った。

今変わろうと思う。今後どんなことが起こるかは分からないし不安だけど、自分は変わるだろうし、今度は変化の中心に立とうと思う。そ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始めようと思う。

김생/キム・セン

지난 8월 8일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저는 일본의 도호쿠 지방의 센다이를 방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성공회 청년들과 교류하는 등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선, 저를 이렇게 일본으로 보내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애써주신 성공회의 신자 및 신부님들, 그리고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일본성공회 신부님 및 신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인상 깊은 일들을 뽑아 보자면 첫째로, ‘피해지 순례’입니다. 한국에서만 봤을 때는 3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가 다 된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 그저 겉 표면의 쓰레기만 사라졌을 뿐 전혀 복구가 진전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동북지방 대지진 문제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지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일이 잘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청년교류’입니다. 바다 건너 친구들과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세미나를 계획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셋째로, 세미나 도중 받은 방사능 교육입니다. 전 일본, 특히 후쿠시마의 방사능에 의한 이재민들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놀라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본 일본의 태도는 방사능이 안전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그것은 일본 정부, 언론등의 태도에 불과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이야기를 불신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일본을 비난하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더 심각하게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귀국하는 8월 15일까지 저는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후쿠시마의 진실, 희망의 교회에 대해 알았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유쾌한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다음의 만남은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이러한 교류가 끝나지 않는다면, 꼭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싶습니다. 부디 이러한 만남이 부활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去る8月8日から光復節である15日まで私は日本の東北地方の仙台を訪問しました。その時間の間、被災地域を見回して日本聖公会の青年たちと交流するなど私にとって大切な時間でした。まず、私をこのように日本に送るために東奔西走して気遣ってくださった聖公会の信徒の方々および司祭様方、そして私どもを暖かく迎えてくれた日本聖公会の司祭様方および信徒の皆さんに感謝の挨拶を申し上げます。

いくつか印象深かったことを選んでみるなら第一に、「被災地巡礼」です。韓国にいた時は3年もの月日が経ったから被害復旧は全てできたものだと思っていましたが、実際に行ってみるとただ表面のゴミだけが消えただけで全く復旧が進展していないことが分かり、東北地方の大地震の問題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と感じました。被災地域のために献身される方々の仕事があまくいくことを熱心に祈ると心に誓いました。

二番目の経験は「青年交流」です。海を渡って友達と互いを知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このセミナーを計画するのに苦労された全ての方にもう一度感謝いたします。

三番目に、セミナーの中で受けた放射能についての教育です。全日本、特に福島放射能による被災者たちの葛藤が激しいと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互いに傷付き合っているという事実が残念でまた驚き

でした。実際、韓国で見た日本の態度は放射能が安全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ものに見えたが、事實はそれは日本政府、言論などの態度に過ぎず、居住する人々さえ彼らの話を不信に思っているという新しい事実を知った時、何の考えもなしに日本を非難していた私が恥ずかしく思えました。そういう問題が自分の国で起こる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を知り、より一層深刻にこの教育を受けた記憶が浮かんできます。

帰国する8月15日まで私はおいしい食べ物と暖かい歓待を受け、福島の実、希望の教会について知り、何より大切な私の愉快的な友達を得ました。次の出会いはいつになるか知りませんが、このような交流が終わらないならば、必ずまた会えることを知っているのです、楽しみにして待っています。ぜひこのような出会いが復活の日まで続くことをお祈りします。

문지현/ムン・ジヒョン

요즘 들어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곧잘 느낍니다. 희(喜)·로(怒)·애(哀)·락(樂) 등 등…… 그래서인지 예전엔 들리지 않던 노래 가사 말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공감됩니다. 제 아무리 실연에 관한 슬픈 노래라 한들, 이별에 대한 슬픈 기억이 없다면 그저 우울한 멜로디에 불과하겠지요. ‘경험’이란 그런 것입니다.

2013년, 처음 한일 성공회 청년 세미나에 참가하게 된 저는, 이 세상에 왜 ‘핵’이 존재하는지, 왜 그 ‘핵’을 없애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유치원에 남아있는 바람개비를 보며 가슴 속 깊이 먹먹해지는 슬픔을, 2시 46분을 가리킨 채 멈춰버린 시계를 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를,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아이들을 내버린 일본 정부의 대한 분노를, 생명체란 찾아볼 수 없었던 평야의 후쿠시마를 보며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사고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후쿠시마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멜로디를 흘러 보내주고 있어요. 그 멜로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지는 자신의 몫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각자 스스로, 또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양국 스텝 여러분과,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 멋진 인연에 감사, 이 모든 것에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같이 갑시다! 아주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ここ最近、以前まではよく感じられなかった感情を感じられようになりました。喜・怒・哀・樂などなど…そのせいか、今までは聞こえなかった歌の歌詞の言葉がよく聞こえるようになり、その歌詞を理解し、共感しています。例え、失恋ソングや切ない曲だとしても、別れに対する悲しい思い出がないと、それはただ憂鬱なメロディーに過ぎないでしょう。「経験」ってそういうものだと思います。

2013年、初めて日韓青年セミナー参加した私は、この世になぜ「核」が存在しているのか、なぜその「核」をなくすべきかについて考えさせられました。今年はずいぶん違いました。

幼稚園に残っている風車を見ながら心に染み込む悲しみを、2時46分を指して止まってしまった時計を見ながら想像すらできない恐怖を、国民を馬鹿にし、子ども達を見捨てた日本政府に対して怒りを、生命体とは見られない平野の福島を見ながら何とも言えない虚脱感を感じました。

事故から3年が経ちました。福島のメロディーは今も私たちに流し続けています。そのメロディーをどうやって受け取って、どのように解釈するかは自分自身の役割です。同様に、私たちは、どのような環境で、どのような考えで、どのように生きて行くべきかは、それぞれが、また一緒に考えなければならぬ問題だと思いました。

このような貴重な経験を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に感謝し、両国のスタッフと参加者の皆さんに感謝、素敵な出会いに感謝、このすべてのことに感謝し、また感謝します。

これからもカッチーカプシダ!(같이 갑시다!) また会えるの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일본에 방문하기 전 나 자신이 좋은 모습으로만 포장되어있는 언론을 믿고 의문점을 품었던 탓인지, 피해지에서 보이는 모습들에 미안하고 그 당시 참혹했던 순간들의 현장을 보며 상상하며 마음 아파 하는 것이 느끼는 전부였습니다. 아픔을 헤아리려 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쓰나미 피해에 대한 저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생각은 이런 피해가 그저 피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많은 죽음으로 한 마을의 미래마저 앗아간다는 사실이 더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지 곳곳에 남아있는 그 당시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자연재해의 무서움도 느꼈지만 그보다도 자연재해 뒤에 남겨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보며 느낀 사람들의 마음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았던 것들을 전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도 유일한 길이니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서 기도하면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하루빨리 피해를 입기전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난 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그간의 일정들을 되짚어 봅니다. 약 일주일간의 시간동안 많은 것들을 보며 많은 감정들과 사실들을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을 뒤로한 채 다녀온 지금은 그곳에서 알게 된 인연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함께 본 2011년 쓰나미 피해 이후의 상황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세미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7박 8일 동안의 일정들을 한일 청년 모두가 잊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양국 간의 문제들이 원활하게 풀어질 날을 기대합니다.

日本に訪問する前は私自身が良い形にだけ包まれた言論を信じて、疑問点を抱いていたせいなのか、被害地で見える姿たちに申し訳なく、その当時の残酷だった瞬間たちの現場を見て、想像して、心が痛くなったことが感じたことの全部でした。痛みを押し量ろうとした自身が愚かだったということを悟りました。津波被害に対する私の考えを困惑させるばかりでした。特に、小学校を訪問した時の思いはこのような被害がただの被害でだけで終わるのではなく、子供たちの多くの死によって村の未来まで奪い取るという事実がさらに残酷にさせました。また、被災地のあちこちに残っているその当時の跡等を見るたびに自然災害の恐ろしさも感じたが、それよりも自然災害の後に残された、愛する人々を失った人たちの心もとてもつらく感じられました。にもかかわらず、生きていく人たちを見て希望を見ました。その場で共に見て感じた人たちの心も私と大きく違わ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祈ろうと思います。そして愛する人たちに私が見たものたちを伝えようと思います。この二つが今私がここでできる最も大きくて唯一の道だからです。多くの人々の心が一ヶ所に集まって祈ればもしかしたら奇跡が起こらないだろうか考えてながら、一日も早く被害をこうむる前の姿を取り戻すことを願ってみます。

7泊8日間の日程を終えた後、本来の場所に戻ってこれまでの日程を振り返って見ます。約一週間の間に、多くのことを見て、多くの感情たちと事実たちを知っていく貴重な時間ではなかったかと思えます。日本に行く前、多くの悩みと心配を後ろにしたまま行ってきた今はそこで知った縁たちに対する大切さを感じ、共に見た2011年津波被害以後の状況を共に記憶して、祈って、同じ心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点が私にとってこのセミナーを通じて得た最も大きい実のりであると考えます。7泊8日間の日程を日韓青年のみんなが忘れないで一つの心、一つの思いで祈って、両国間の問題が円滑に解ける日を期待します。

도호쿠교구 방문에 앞서 그 당시 나의 심적 상황은 복잡했다. 이번 해 1월 달에 내가 이 분야에 몸 담을 준비가 되었나 하는 의문에 그토록 원하던 의대공부를 미뤄두고 1년 동안 휴학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래서 웬지 모르게 나는 이 인생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에 겁이 났고 일본으로 가는 것마저도 걱정거리와 겁에 휩싸여 여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이 세미나를 통해 쓰나미 피해를 입어 가족, 직장, 그리고 희망까지 잃은 사람들을 보며 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유시경 신부님께서 3년 전 보다는 이 사람들이 많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셔서 다행이었다. 이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돌아왔다. 도호쿠교구 방문과 한일청년 세미나는 상처가 아무는 동안 기다림이 필요하듯이 동일본대재해를 겪은 사람들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나에게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여행이었다. 나의 어지러웠던 머릿속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더 이상 이렇게 뭔가를 찾기 위해 밖으로 돌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내게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한 두려움은 그저 나의 생각이지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일본 대 재해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점점 아물어 가는 것 같다.

東北教区訪問に先立ちその当時私の心的状況は複雑だった。今年1月に私がこの分野に身を置く準備ができたのだろうかという疑問から望んでいた医大の勉強を押し退けて1年間休学を決心して韓国に戻ってしまったし、それでなのか何故かしら私はこの人生で敗北したという考えに怖くなっていて、日本へ行くことさえも心配と恐れに包まれながら旅を始めた。だが、私はこのセミナーを通じて津波被害をこうむって家族、職場、そして希望まで失った人々を見ながら私の無気力な姿を見ることとなった。ユ・シギョン司祭様は3年前よりはこの人がたくさん現実を見つめて、その場から再び始めようとする姿が見えるとおっしゃっていて幸いだった。この方が再び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るならば私も再び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考えに力が戻ってきた。東北教区訪問と日韓青年セミナーは傷が癒える間待つことが必要なように、東日本大災害を体験した人々にも待つことが必要であり、また、私にも私が本当に望むものを探すためには待つことが必要だということを切実に感じさせてくれた旅だった。私の目がくらむようだった頭の中はある程度整理されたし、これ以上このように何かを探すために外を出回る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を知った。結局何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ぬのかについての答えは私にあって、何かことが起こるのかに対する恐れはただ私の考えであって現実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知った。東日本大災害被害を受けたすべての人々のように私もますますいえて行くようだ。

김민주(에은)/김·민쥬(에운)

지난 2011년 일본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여 원전에 문제가 생겨 방사능이 노출되었다는 뉴스를 봤다. 그 당시에는 방사능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저 ‘안타깝다 언젠가는 복구가 되겠지’ 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쓰나미 피해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지원과 관심을 쏟았지만 점차 지원과 관심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잊어가고 있었다.

3년이 지난 뒤 우연히 과학서적에서 후쿠시마 원전을 다룬 주제를 읽었고 일본에서 한일청년세미나를 한다는 것을 보고 신청하여 일본에 갔다 왔다.

일본에서 원전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쓰나미 피해지역, 가설주택들을 둘러 보았는데 정말 암담하였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3년이 지났지만 복구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모습, 쓰나미로 인해 직업을 잃으신 분들을 보며 내가 한국에 돌아가도 이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 또한 가토 주교님께서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기도로써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세미나를 마치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방사능에 노출된 아이들이 갑상선에 암이 생겼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체르노빌과 비교를 하며 암이 생긴 것이 방사능의 원인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것을 듣고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고 평생 동안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다. 나 역시 가족력으로 인해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방사능으로 몸이 망가지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감정이입이 쉽게 되었던 것 같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가설주택에 있으신 분들이 직업을 찾고 집을 다시 짓고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갈등과 불화들이 잠잠해지길 바라며 그렇게 되기까지 열띤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며 가족, 지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느꼈다.

去る2011年、日本で大地震により津波が発生して原子力発電所に問題が生じて放射能が露出したというニュースを見た。その当時には放射能の危険性を感知できないままだ「残念だ。いつかは復旧できるだろう」という軽い心だった。

津波被害が起きて全世界で途方もない支援と関心を注いだが次第に支援と関心が減る姿を見て、また忘れ去っていた。

3年が過ぎた後、偶然に科学書籍で福島原子力発電所を扱った主題を読み、日本で日韓青年セミナーをするというのを見て申し込み日本に行ってきた。

日本で原子力発電所を見ることは出来なかったが、津波被害地域、仮設住宅を見回して本当に絶望的だった。津波が起きて3年が過ぎたのに復旧がほとんどできていなかった姿、津波によって職を失われた方々を見て、私が韓国に戻ってもこの方たちを忘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心を持った。また、加藤主教様も私たちが彼らのために物質的な助けをすることは出来ないが祈りで彼らを慰めなければならぬとおっしゃっていた。

セミナーを終えていまだに記憶に残る部分は放射能にさらされた子供たちが甲状腺に癌ができたのに、日本政府では去るチェルノブイリと比較をしながら癌ができたのは放射能の原因ではないと公式発表をしたことを聞いて手が震えるほど腹が立ったし、一生の間甲状腺ホルモン剤を飲まなければならない子供たちがとても可哀そうだった。私もやはり家族歴のためホルモン剤を飲んでいるのだがこの子供たちは放射能によってからだ壊れるのだと思い、自然と感情移入することが出来たと感じた。

何年かかるのかは分からないが仮設住宅にあった方々が職を探して、家を再び作って、子供たちが幸せになって、すべての葛藤と不和がおさまるように願いつつ、そうなるまで熱を帯びた関心を持って祈りを捧げ、家族、知人たちに知らせなければならぬと感じた。

하수민/ハ・スミン

한일 청년 세미나는 “가자, 핵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로” 라는 주제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센다이, 일본에서 쓰나미/방사능 피해지역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런 재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사는 현지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아픔과 희생에 안쓰러웠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였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그들이 회복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가 있었다. 재난이 있기 전과 같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하루” 를 살아갔으면 하였다.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日韓青年セミナーは「行こう、核を越えて東北アジアの平和へ」という主題で8月11日から15日まで仙台、日本で津波/放射能被害地域そしてその主題に関し多くの情報を得ました。このような災難に関心を持つことになったし、その深刻性を知った時、たくさん考えさせられました。一番最初にその地域に住む現地の人たちが耐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の痛みと犠牲が痛ましく感じ、彼らが再び立ち上がれるように役に立てたらと思いました。このような経験によって彼らが回復して、弱点を補完するのに努力をたくさんしていたので希望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災難がある前と同じではなくても彼らが「一日」を生きていけたらと思いました。いつもお祈りします。

核を越え、東アジアの平和の器となる。それは一人一人の痛みや不安、恐れ、そして喜びや楽しさを共感するところから始まると、あらためてこのセミナーで感じました。

この韓日交流は、日本が起こした侵略戦争の傷跡を癒すべく、歴史を痛みを負う者の視点から振り返り、その声に耳を傾けることを通して両聖公会の青年たちが紡いできた軌跡でした。このことは、課題を原発・核に置いた時にも変わらず大事な視点であり、今回青年たち自身の声として、痛みの意識化、共有が生まれたことは、大きな恵み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先行きの見えない不安、そこにただ沈黙して佇むしかない状況を経験した私たちは、他者の痛みと、自分の痛みが共感する経験をしたと思います。そこから、何かが始まることに希望を見出したいと思います。

最後に、痛みの意識化、共有は、さまざまな人々や被造物とつながっていくと思います。韓日、そして在日、また歴史の中でかき消されてきた多くの被爆者の方々、また日常的に低線量被曝を受け続けている世界中の人々、特に幼い命。経済的・軍事的・文化的に搾取され続けている人々。その方々は私たちの身近におられ、今この時を生きておられます。韓・日・在日、かき消されている存在に耳を傾け続けることが、次の一歩へと踏み出す力になると思います。

韓日交流 30 周年を迎える今年、青年たちの祈りが私たちの未来を照らしてくれ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またマレーシア・クアラルンプールで開催されます 2016 年アジア青年大会でも、青年たちの祈り、思いが共有されますように。主と共に、主の平和。

핵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 그릇이 된다. 그것은 한사람 한사람의 아픔이나 불안, 우려, 그리고 기쁨이나 즐거움을 공감하는 곳에서 시작하면서, 새삼스럽게 이 세미나에서 느꼈습니다.

이 일한 교류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상처 자국을 고치기 위해, 역사의 아픔을 짊어진 사람의 시점에서 되돌아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양국성공회의 청년들이 걸어왔던 흔적이었습니다. 이 것은, 과제를 원전 핵에 두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청년들은 자신의 목소리로서, 아픔의 의식화, 공유가 생긴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 거기에 단지 침묵해서 잠시 멈춰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 우리들은, 타자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이 공감하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에서 희망을 찾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픔의 의식화, 공유는, 다양한 사람들이나 피조물과 연결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그리고 재일, 또 역사상에서 지워져 온 많은 피폭자들, 또 일상적으로 저선량피폭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온 세계의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의 목숨. 경제적·군사적·문화적으로 착취되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한·재일, 지워지고 있는 존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교류 30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청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미래를 비추어 주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2016 년 아시아 청년대회에도, 청년들의 기도, 생각이 공유되기를. 주님과 함께, 주의 평화.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に初めて参加しました。また、東北の地で初めて開催されたセミナーでもありました。まさに私にとっては初めてづくしの連続でしたが、本当に素晴らしいセミナーだったと思います。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である仙台、新地を会場にして行われましたが、参加者の皆さんがしっかりと目的意識を持ってセミナーに臨まれていたことをご一緒に過ごさせて頂き実感しました。そして、さらに「シンボルマーク」を考案してこれからも連帯し、祈り、共に歩んでいこうというプロセスに至った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私は「平和」を思うときに、何よりもまずは自分自身が全く無力で、欲深く、自分勝手であることを自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絶対的な自然の力の前に人はなすすべがありません。だからこそ人は、自然と共に生きる意味があるのです。そして、神

さまが何をなさろうとしていることを日々の生活の中で注意深く見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何かを批判する前にまずは己を徹底的に見つめながら、そしてそんな「私」を忍耐強く見守り、そして「共に行こう」と言ってくださるお方を仰ぎ見ながら共に神さまの御心を追い求めていきましょう。

한일성공회청년세미나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동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세미나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하는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정말로 훌륭한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인 센다이, 신치를 장소로 해서 행해졌습니다만, 참가자의 여러분이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미나에 임했던 것을 함께 지내면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심볼 마크」를 고안해서 이제부터 연대하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자는 프로세스에 이른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를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선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력해서, 욕심 많고, 제멋대로인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연의 힘 앞에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을 매일 생활에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비판하기 전에 우선은 자신을 철저하게 응시하면서, 그리고 그런 「나」를 인내 깊게 지켜보고,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말해 주는 분을 우러러보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추구해 갑시다.

第7回 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2014

閉会礼拝説教

2014年8月15日

日本聖公会東北教区

主教 ヨハネ 加藤博道

日本聖公会東北教区の主教座聖堂もある、ここ仙台の地で重要な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を開催してくださったこと、そして激甚な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を訪問し、祈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まず感謝いたします。

今年は韓国と日本の聖公会が正式に交流を開始した30周年記念の年で、10月には済州島で記念の大会、また合同の主教会が行われます。そして今、わたしたちのいる東北の地は、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の激甚な被災地であり、原発と放射能の問題の渦中にあります。それについては、皆さんはこのセミナーを通して、様々な様子を見、聞き、考えておられることと思います。そして今日は8月15日という日です。言うまでもなく1945年の日本の敗戦の日、そして韓国にとっては、まったく別の大きな解放の意味を持つ日です。あまりに重要な事柄が重なっている今日の日の説教の中で、何を語るべきなのか、わたしは悩みました。しかしすべてのことに触れることは出来ませんので、一つの視点から、わたしたち、特に日本の課題について述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

1945年8月15日、日本の敗戦が宣言され、太平洋戦争が終わった時、もちろんその直前には広島、長崎への原爆の投下がありました。多くの人が「その日からすべてが変わった」と考えました。実際、まったく人生が変わってしまった人々は多くいますし、それまでの教育も価値観も突然に変わり、日本は軍国主義の国から民主主義の国へと大きく生まれ変わったと言われます。実際、そういう面は大変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

しかし、ある出来事があります。太平洋戦争中、思想犯として投獄されていた三木清という思想家がいます。この三木清は8月15日以降も解放されることはなく、それから1か月後に獄死するのです。もし、これがフランスの歴史を大きく変えたフランス革命(1789年)のようであれば、あの日、8月15日に、民衆は、多少暴力的ではありますが、例えば宮殿に押し掛けて、それを民衆のものとし、監獄を襲って戦争中に囚われていた人々を解放したでしょう。しかし日本ではそれは起こりませんでした。日本政府は戦争中の思想犯を解放しなかったし、民衆もその人を救い出すことは出来ませんでした。情けないことに、いつものように外国人記者(ロイター通信)に問題にされて、さらに占領軍司令官マッカーサーによって「政治、信仰の自由を制限することの禁止、政治犯の釈放」が命令されてはじめて、他の政治犯も釈放され、時の内閣は総辞職するのです。敗戦の数か月も後のことです。

日本聖公会でも、戦争の後に開催された日曜学校教師大会で、戦争中の皇室のご苦勞を思って感謝し涙した、という記事を読んだことがあります。驚きますが、太平洋戦争の終了をもって、「まったく変わった」部分と、あまり変わらない面があったように思います。少なくとも、日本の民主主義は、民衆の力、自分たちの力で、勝ち取ったものとは言い難いように思います。

わたしの子ども時代は、もちろん戦争の後ですが、娯楽としては戦争映画が盛んで、人気のあるアメリカの西部劇では主役の白人が、「未開の」先住民—インディアン—と戦って追い出していました。白人は美しく、インディアンは残酷に描かれ、その彼らを打ち破っていくことが、アメリカの開発、進歩だったのです。「反戦」とか「人権」、そして「市民運動」という言葉がクローズアップされるのは、わたしは1960年代後半以降、1970年代、ベトナム戦争の時代からと感じています。教会の宣教につ

いて、深刻な反省がなされるのも、その時代からです。物事が本当に変化するために、長い時間がかかり、根気がいる場合もあります。

「あの日、あの時から、すべては変わった」という言葉を、もう一度、最近耳にしました。わたしもそのように感じ、発言もしました。2011年3月11日です。「あの日、あの時から、すべては変わった」。人間の生きる意味、自然の力の前にもっと謙遜になること、原子力発電に頼って、大きなエネルギーを使いたい放題に使ってきたわたしたちの文明の問題。ですから東日本大震災直後、東京も含め全国で節電が強調されました。町も以前よりうす暗くなりました。日本の社会のあり方は変わっていきたくらうと多くの人が考えました。もっと慎ましく、貧しく生きようと、あるいは他の人のために役に立つ生き方をしたいと多くの人が考えました。

しかし、あれから3年が経って、現在はどうでしょうか？ 今の政権は経済成長を掲げて登場し、「アベノミクス」と称して大きな勝利を獲得しました。オリンピックも決まりました。政府は原子力発電所も再稼働させたいと強く願っています。日本社会はまた力強く、経済的に強力な国家になろうと目指しているようです。

その陰で、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はだんだんと忘れられるか、少なくとも後廻しにされているように感じます。オリンピックをはじめとした大型の建設工事が東京を中心に活発になる中で、被災地では復興住宅を建てようにも、資材も人件費も高騰し、ますます回復の道のりは遠くなっていくようです。

もしこれが、東京が被災地であったら、さすがに日本社会は変わったかも知れません。しかし東北だから、もともと貧しい、辺境の地だから、東北を忘れて後廻しにしても、日本社会は発展をしていくことが出来るのでしょうか？ しかし、イエスが辺境の地ガリラヤからそのお働きを始められたように、東北は希望の地でもあると信じます。

「あの瞬間から自分の人生は変わった」「社会の価値観が変わった」と言われるような、大きな出来事が時々あります。韓国での今年4月の修学旅行の多くの高校生が犠牲となったセウォル号の事故も、そうかも知れません。

本当に、人間が自分の生き方を方向展開し、また社会が謙虚になって、すべてのものの命を敬い、尊ぶようになる・・・そういうことは可能なのだろうかと思えます。どうしても強くなること、戦って勝つこと、とくにお金の力、経済的な豊かさ、発展を求める欲求、自分の生命だけを守り、利益を得たいと考えること、そこには大変大きな力があります。

そうした中で、キリストの眼差しを持ち続けること、キリストの弟子として行動すること、それが教会の使命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もっともっと聖書を学ぶこと、祈ること、また広く深く学ぶことが大事です。社会や国際情勢は決して単純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して自分の国の価値観だけでなく、他者の思い、経験、隣人の経験を真剣に聞きあうこと。これが絶対に必要です。大韓聖公会と日本聖公会が、時が良くても悪くても、しっかりと交わりを保ち、共に歩み、学びつづけることは、東アジアの、ひいては世界の平和のために、絶対に必要なことなのです。そう信じています。

これから続く聖餐式で、わたしたちは「一つのパン、一つの杯」を分かち合います。それはキリストの出来事を記念し続けることであり、いまだこの地上で実現していない、真に「共に生きる」ことのヴィジョンを雄弁に示しているのです。

今回参加された皆さんのこれからの歩みの上に、そして大韓聖公会、日本聖公会の宣教と奉仕と交わりの上に、これからも主の導きと祝福が豊かなに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

父と子と聖霊の御名によって、アーメン

以上

제 7 회 한일 성공회 청년 세미나 2014

폐회 예배 설교

2014 년 8 월 15 일

일본 성공회 동북교구

주교 요한 카토 히로미찌

일본 성공회 동북교구의 주교좌 성당도 있는, 센다이 지역에서 중요한 한일 성공회 청년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것, 그리고 극심한 동일본 대지진 의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기도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 성공회가 공식적으로 교류를 시작한지 30 주년 기념 의 해로써, 10 월에는 제주도에서 기념 대회, 또한 합동 주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동북의 땅은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의 극심한 피해 지역이며, 원전과 방사능 문제의 와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여러분 은 이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8 월 15 일입니다. 물론 1945 년 일본의 패전의 날, 그리고 한국에게는, 전혀 다른 중대한 해방의 의미를 지닌 날 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겹치는 오늘의 설교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저는 고민했습 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 특히 일본의 과제에 대해 말해 보고 싶습니다.

1945 년 8 월 15 일, 일본의 패전이 선언되고,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물론 그 직전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들이 “그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인생 이 바뀌어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육도 가치관도 갑 자기 바뀌었고,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크게 변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면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건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사상범으로 투옥되어 있던 미키 키요시라는 사상이가 있습니다. 이 미키 키요시는 8 월 15 일 이후에 도 석방되지 못했고, 그로부터 1 개월 후 옥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프랑스 의 역사를 크게 바꾼 프랑스 혁명 (1789 년)이었다면, 그날 8 월 15 일 민중은 다소 폭력은 있지만, 예를들어 궁전에 몰려가 그것을 민중의 것으로 하고, 감옥을 습격해 전쟁에 사로 잡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 주었겠죠. 그러 나 일본에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 다. 일본 정부는 전쟁중에 사상범을 석방하지 않았으며, 민중도 그 사람을 구출하지 않았습니 다. 한심한 것은, 언제나처럼 외국인 기자(로이터)에 의해 문제가 되었고, 또한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에 의해 “정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금지, 정치범의 석방”을 명령되어 처음으로 다른 정치범도 석방되었고, 당시의 내각은 총사직 하였 습니다. 패전 수개월 후의 일입니다.

일본 성공회에서도 전쟁 후 개최된 주일학교 교사 대회에서, 전쟁중의 황실의 노고를 생각해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 다. 놀랐지만, 태평양 전쟁의 종료를 이유로, “완전히 바뀌었다” 부분과 별로 변하지 않은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본의 민주주의는 민중의 힘 ,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한 것 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물론 전쟁 후하지만, 오락으로는 전쟁 영화가 번성했고, 인기있는 미국의 서부극에서는 주역 백인이 “미개한” 원주민 - 인디언 -과 싸워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 백인은 아름답게, 인디언은 잔인하게 그렸고, 그들을 쳐부수고 나가는 것이 미국의 개발, 진보였습니다. “반전” 또는 “인권”, 그리고 “시민 운동” 이라는 말이 클로즈업 된 것은, 저는 1960 년대 후반 이후, 1970 년대 베트남 전쟁의 시대부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이루어진 것도, 그 시대부터입니다. 상황이 정말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끈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날, 그 때부터 모두 변화했다”라는 말을 다시 최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발언도 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입니다. “그 날, 그 때부터 모두 변화했다.” 인간의 삶의 의미, 자연의 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는 것,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고, 마음껏 사용해 온 우리의 문명의 문제.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직후 도쿄를 포함한 전국에서 절전이 강조되었습니다. 도시도 이전보다 약간 어두워 졌습니다. 일본 사회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더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유용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의 정권은 경제 성장을 내걸고 등장해, “아베노믹스”라고 꼬드겨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올림픽 픽도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도 재가동시키고 싶다고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다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지역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올림픽을 비롯한 대형 건설 공사가 도쿄를 중심으로 활발해지는 가운데, 재해지에서 부흥 주택을 지으려도, 자재도 인건비도 상승해 점점 회복의 길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도쿄가 피해 지역이었다면, 확실히 일본 사회는 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북이라서, 원래 가난한, 변방의 땅이기 때문에, 동북을 잊어 버리고, 뒷전으로 해도, 일본 사회는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변경의 땅 갈릴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동북은 희망의 땅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바뀌었다”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큰 사건이 때때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올해 4월 수학 여행중의 많은 고등학생이 희생된 세월호의 사고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 인간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방향전환 하고, 또한 사회가 겸손해지고, 모든 것의 생명을 공경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는 것, 특히 돈의 힘, 경제적인 풍요, 발전을 추구하는 욕망, 자신의 생명만을 보호하고, 이익을 얻고 싶은 생각, 거기에는 매우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욱 더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한 넓고 깊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와 국제 정세는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 경험, 이웃의 경험을 진지하게 듣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한 성공회와 일본 성공회가 사이가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굳건한 교류를 유지하고, 함께 걷고, 배우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성찬식에서 우리는 “하나의 빵, 하나의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념하고 계속하는 것이며, 그것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은 진정한 “더불어 사는” 비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앞으로의 행보에, 그리고 대한 성공회, 일본 성공회의 선교와 봉사와 교류에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와 축복이 풍부하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14. 8. 11-8. 15 Memory of Sendai







2014日韓聖公会青年セミナー報告書

編 集 青年委員会

発行日 2014年11月

印 刷 日本聖公会 管区事務所 (400部)